3.5% 보살로 살아가자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교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이후에 무량한 게송이 밀교 경전에 수록돼 남천축국 철탑 안에 봉안됐다. 그러나 철문은 굳게 닫히고 쇠사슬로 겹겹이 봉쇄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문을 열 수 없었다. 천축의 불법이 쇠퇴해갈 무렵, 덕 높은 아사리 한 분이 이 탑에 이르러 진언을 외우자 비로자나불이 비로소 그 몸을 드러내었고, 이윽고 허공 중에 문자로서 설법을 나투었다. 범상치 않은 법문임을 알아차린 그는 차례로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었는데, 서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허공의 문자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사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염송해 탑문이 열리기를 서원했고, 7일 동안 탑을 돌며 염송한 후에 흰 겨자씨 일곱 알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문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두컴컴한 탑 안에 갇혀있던 여러 신(神)들은 이리저리 날뛰며 노여워했다. 진귀한 꽃들이 탑의 덮개 부분에 그득히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조심스레 탑 안으로 발을 옮기자 탑문은 곧바로 닫혀버렸다. 그윽한 향기가 진동했고, 갖가지 등(燈)에서 뿜어져 나온 광명으로 사방이 환하게 밝혀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자, 갑자기 어디선가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들어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대중이 찬탄하는 듯한 음성이었다. 환청과도 같은

〈금강정경〉에 남천축국 철탑은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 상징해
중생으로 살지 말고 보살로 살라

이 소리는 며칠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고 계속됐는데, 이상하게도 마치 밥 먹는 동안의 잠깐 사이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사리는 제불보살이 깨우쳐주신 우주와 인생의 지혜를 기억해 잊지 않았는데, 문득 탑에서 나오니 예전처럼 도로 문이 닫혀버렸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여러 게송을 서사한 경전이 들려져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밀교의 소의경전인 〈금강정경〉이었다.

〈금강정경의결〉이라는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전설과도 같은 이 남천축국의 철탑은, 어쩌면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왜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만법을 섭수하는 공덕의 그릇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을 체(體)로 하고 세간법을 그림자로 해 항상 진리와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고자 하는 우리가 아닌가. 7일간의 탑돌이 끝에 일곱 알의 겨자씨를 던져 탑문을 연 순간 향화(香華)·등명(燈明)이 눈 앞에 펼쳐지고 진리를 찬탄하는 음성이 들려왔듯이, 일주간을 불공하는 마음으로 용맹정진한 끝에 찾아오게 될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장원하리라.

어두운 곳을 밝히고, 닫힌 문을 여는 것은 비단 아사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리의 불모지에 사찰이나 전당을 신설해 현대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인연을 짓는 일은 스승·신교도를 막론하고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할 종교적 사명이 아닐까.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단 3.5%의 염분 덕분이라고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100명 중 97명이 어리석은 중생일지라도, 단 3~4명만이라도 지혜로운 이가 있다면 이 세상은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리라. 귀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 중생으로 살지 말고, 이왕이면 지혜로운 보살로 사는 길을 인연하도록 서원하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꿈 속 어린애 놀이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유행가 가사처럼, 요즘 벌어지는 세상사는 철없고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트코인? 애들 불장난치는 걸 어른이 말려야지,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년전 뜬금없이 등장한 가상화폐 열풍에 각종 매체에서 떠들던 단골 멘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불장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장(상승장)이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걸까? 진실은 사랑처럼 움직이는 걸까?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되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를 이끄는 동력은 단연 디지털이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실세계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디지털은 낯선 세계일 수밖에 없다. 실세계만 진짜고 디지털은 가짜라는 선입견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뇌과학은 감각기관으로 입력된 대상 정보가 어떠한 전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전두엽에 이르러 대상을 인식하는지 소상히 밝히고 있다. 수천억 개에 달하는 뇌세포 사이의 길고도 먼 정보 전달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왜곡을 토대로, 지각과 인식 사이에 개입되는 언어적 변환, 그리고 입맛대로 가공되어 저장된 기억으로부터 인출된 정보를 거쳐야만 눈앞의 대상은 비로소 인식된다고 뇌과학은 말한다. 우리

연일 상승 중인 가상화폐 시장
금, 가상화폐 모두 개념만 존재
실제·가상세계 따로 존재 않아

가 실세계라고 믿는 것이 진실에 있어서는 컴컴한 두개골 속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화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것도 감독과 주연 모두 자기 자신인 자작극이다. 붓다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 일체가 연기된 것이기에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금강경〉)

한편 뇌과학이 인식 주체에 관한 진실이라면, 양자역학은 인식 대상에 관한 진실을 다룬다. 의식의 개입 없는 독자적 대상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결론이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금덩이만이 최고가 아니다.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비트코인이지만 금덩이를 능가한다. 누가 뭐래도 금은 진짜, 비트코인은 가짜 아니냐고?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금덩이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개념으로만 볼 뿐이다. 비트코인처럼!

붓다가 본 진리는 공성이다. 실체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라는 뜻이다. 금덩이도 비트코인도 꿈속 어린애 놀이와 다르지 않다. 실세계 따로, 가상세계 따로가 아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다. 공색여여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윤회계 존재를 세 가지 양태로 구분한다. 생시, 꿈, 그리고 죽음과 탄생 사이의 중음이다. 이 셋은 '불이(不二)'다. 생사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인 '불이'의 실상 진리를 통찰하기 위해 세 상태 각각에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의식의 계발을 최상의 수행법으로 삼는다. 비록 실체는 없지만, 상호의존적이기에 불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이 된다는 점에서 무한 가능성의 진리다. 동시에 실체처럼 생생한 느낌과 의식과 행위를 수반하기에 저지른 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발효된다는 점에서 무한책임의 진리이기도 하다. 오랜 논란거리인 우문으로 마무리한다. 현답은 독자의 몫이다. "윤회는 있는 걸까? 없는 걸까?"

社 說

조계종 조직 개편, 미래를 위한 준비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9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 핵심 사안으로 평가된 종헌 개정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과 포교원은 내년 4월 1일자로 종헌에서 삭제된다. 1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총무원은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세부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통합해 총무원 1원 체재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삼원의 통합으로 총무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1994년 종단개혁의 핵심에서는 비껴나가 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삼원을 분리한 것은 종단 살림과 승가교육, 전법사업에 전문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탈종교화로 인한 불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는 더 이상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 형태로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각 원별로 자체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니 행정력이 분산돼 3원 독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교육원, 포교원으로 나눠진 종단 연구소들도 하나로 통합해 종단의 아젠다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으로 1년의 시간은 조계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제는 종도 전체가 머리를 맞대어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진격의 '대학생 전법' 더욱 확산되길

대학생 전법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3월 17일에는 봉선사에서 3개 대학 4개 불교동아리를 창립해 이를 기념하는 법회를 열었다. 특히, 양주 서정대는 국내 학생과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교동아리가 각각 창립했고, 기독 종립 대학인 신한대에는 5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아 정식 동아리로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봉선사는 4개 대학 5개 불교동아리 창립을 견인해냈다.

3월 20일에는 동국대 단과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이 창립됐다. 사회과학부 학부생·대학원생 등 총 84명이 주축이 된 '템플애플'은 스님 법문과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체험 등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정총림 범어사의 경우 3월 16일 '대학생전법단 지정 법회'를 봉행하고, 대학생 전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도법사 부재의 상황에 놓인 부산대 불교바라밀회를 지정 후원할 뜻을 밝혔다.

또한 범어사는 오는 3월 30일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7대 대학 합동법회로 전법 역량을 모으고, 오는 5월에는 부산교대 불교동아리 창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회향하는 자리에서 울린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원력은 전법 불사의 씨앗이 돼 대학생 전법의 새싹을 틔워냈다. 이 새싹을 꽃과 열매로 키워내는 것은 전법에 대한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다. 대학생 전법 열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불교의 미래 BTN 불교TV
초심자부터 참선 수행자까지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신규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12:00, 22:30 / (토)19:30



송담스님의 이뭣고
방송시간 : 매주 (수)19:00 / (목)08:30 / (일)21:00



불교사용설명서
방송시간 : 매주 (금)09:30, 21:30 / (일)22:00



전설의 법문
방송시간 : 매주 (금)12:00, 23:15 / (일)13: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